

# 성도의 빛 1

1982





성도의 빛 1 1982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차 례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앤 앨론 테너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힐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테프트 벤슨  
미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운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매쉬튼  
브로스 알 맥클리  
앨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고문  
앨 러셀 벨라드 이셔  
로렌 시 던  
렉스 디 피네가  
찰스 에이 디메이  
조지 피 리  
에프 엠지오 부쉬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1

혼란의 시대.....제프리 알 홀랜드..... 7

동기를 부여하는 복음 교육.....렉스 에이 스킵드 모어.....14

배움은 모든 사람의 과업.....조 제이 크리스틴슨.....18

오파포.....칼 포노이모아나.....19

“암호는...,”.....제이 린 브레도 포드.....24

할아버지 헤스티 .....테리 데일.....25

어둠 속에서 비친 빛 .....토마스 제이 그리피스.....28

다른 차원에서의 관점 .....리 달튼.....33

“제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지요?” .....시 콕 레몬.....36

공중 도시.....윌리엄 비숍.....38

카우보이 개미 .....진 킹.....40

내 친구 .....지 호머 더럼 장로.....43

지역 지도자 메시지.....박 병규 부산 선교부장.....46

해외 소식.....48

지역 소식.....50

성도의 빛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는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 4권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카드/지부의 카드 변경표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198호, 제12권 제1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2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딜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권 수  
 STOCK NO. PBMA0416KO PRINTED IN SEOUL, KOREA 1/R2International magazine

© 1982년  
 제1권 1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집인 유진

표지 설명 :

오파포의 사진이 서 사모아의 사우니아프의 정경과 함께 보인다.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우 리 말일성도는 계시를 통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으므로 현 시대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닥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고정된 자신의 어떤 표준에 따라 세상사와 경험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능하신 주께서 긴장과 시련으로 가득 찬 이 말일에 그의 백성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내 머리 속에는 아주 일찍부터 자리 잡고 있었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격렬한 전쟁으로 폐

우리 말일성도는  
 게시를 통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으므로  
 현 시대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닥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히가 된 멕시코에서 살았습니다. 전세  
 가 서로 밀고 밀리는 동안 나는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반란군은 북쪽 시  
 우다드 주아레즈로부터 치화화 시로,  
 정부군은 남쪽 토레온으로부터 치화화  
 시로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졌을 때를 나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쪽 군대가 바로 16킬로미터 떨어진 카  
 사스 그란메스에서 접전하여 포격을 개  
 시하자, 불안은 두려움과 공포로 변했  
 습니다. 모험심이 강한 소년들은 그러  
 한 상황 속에서도 베즈마 산으로 올라  
 가 쌍안경으로 전투 모습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어린 시절에 것처럼 잊을 수 없  
 는 동란을 겪은 나로서는 나라에 전쟁  
 이 일어나도 마음에 화평을 느낄 수 있  
 다는 교리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의 훌륭한 어머니  
 께서 아기를 재우려고 부르시는 자장가  
 소리를 들을 때는 두려움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나를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는 약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 나의 머리에 그대로 남  
 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대하신 여호  
 와여”와 같은 찬송가입니다.

마지막 날 다가올 때  
 두렵없게 하시고  
 주의 심판 시작될 때  
 우리 지켜 줍소서, (찬송가 142장)  
 그리고 팔리 피 프랫이 작사한,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 오셔서  
 당신의 품 안에 고이 품어 줍소서……

불로서 죄 태워 정결케 하옵소서……  
 (찬송가 24장)

더블류 더블류 펄프스가 작사한  
협한 말일에 인도하시는 여호와  
신앙으로 그 팔에 의지하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 멸할 때  
의인과 함께 우리 일어나리.  
(찬송가 129장)

해가 지남에 따라 나는 경전에 대해  
좀 알게 되었으며, 소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글을 쓴 경전 속의 형제들은  
게시를 통하여 주님께서 재난 속에서도  
성도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니파이는 오늘날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가독하신 진노가 모든  
인간에게 쏟아질 때가 임박하였음이  
며, 악인의 의인을 멸함을 주께서 용납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주의 권세로 의를  
지키시나니, 가독하신 진노로 임하시는  
날에라도 원수들은 불에 타서 패망하나  
의로운 자를 구할 것이며, 의로운 자  
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니라. 불로 치  
시는 날에라도 의인은 구원받으리라고  
선지자가 말씀하셨느니라.”(니파이일서  
22 : 16, 17)

주님은 계시로써 교리와 성약 서문을  
주시면서, 그가 계시하신 모든 것을 기  
꺼이 “모든 인간에게 알게 하려” 하신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을 의모로 취하지 아  
니하며 모든 자로 하여금 그 날이 속히  
임하는 줄 알게 하려는 자인 연고라. 지  
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며 악마가 자기  
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 그  
시작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때가 임박하였도다.

“그러나 주는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

---

“그러므로 주님은  
주의 권세로  
의를 지키시나니,  
가독하신 진노로  
임하시는 날에라도  
원수들은 불에 타서 패망하나  
의로운 자를  
구할 것이며,  
의로운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니라.  
불로 치시는  
날에라도  
의인은  
구원받으리라고  
선지자가 말씀하셨느니라.”

---

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며 아이두미아 곧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리라.”(교리와 성약 1 : 35, 36)

예수께서는 감람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장차 이를 우리들의 시대를 예견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에루살렘의 멸망과 그의 재림의 예표에 대하여 질문하자 주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그가 살았던 세대]—은 멸망되어 모든 국민 가운데 흩어지리라……

“그러나 저들은 또다시 집합할 것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으리라.

“그날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온 세계는 동요할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워 떨며……

“또 사람의 사랑은 차차 식어질 것이요, 악행이 가득 차리라.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면 빛이 암흑 속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비치리니, 이 빛은 나의 충만한 복음이 되리라.

“그러나 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들이 빛을 깨닫지 못함이요, 인간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내게서 돌이키는 연고니라.

“그 세대에 이방인의 때가 가득 차리라.

“그 세대에 사람들이 있어 자기들을 휩쓸어 가는 징벌을 보기까지는 없으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황폐케 하는 질병이 땅을 뒤덮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의 제자들은 기록한 곳에서 있어 움직이지 아니하려니와 악인 중에는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는 자들도 있으리라.

“각 처에 지진과 많은 황폐가 있으리라.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자기의 마음

---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면  
빛이 암흑 속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비치리니,  
이 빛은  
나의 충만한 복음이 되리라.  
“그러나 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들이  
빛을 깨닫지  
못함이요,  
인간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내게서  
돌이키는 연고니라.”

---

을 완악하게 하여 내게 대적하며 짐을  
들어 서로 치며 죽이리라 하였더라.”  
(교성 45 : 19, 25—33)

나는 우리가 마음에 화평을 누리고  
생활하려면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마음에 화평을 간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생활하면 전쟁은 없을 것이며 평화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을  
심각한 고난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리라고 기대  
하지는 않습니다. 구세주의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구세주께서 앞에 인  
용한 성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다 이  
루어질 때에는 너희와 맺은 약속이 성취  
되는 줄 알게 될 것이니라.

“나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께서 오시  
는 큰 날 곧 인자가 오는 징조를 바라  
며 기다리고 있으리니,

“저들은 징조와 기이한 일을 보리라.  
이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저들에게 징조가 나타나 보일 것이니  
니라.

“또 저들은 피와 불과 연기를 보리라.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는 어두워  
질 것이요, 달은 피빛으로 변할 것이요,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그러나 남은 자들은 이곳—[에루살  
렘]—에 모이리라.

“그때에 저들은 나를 찾으리니, 보  
라, 내가 오리다. 저들은 권능과 큰 영  
광으로 옷을 입고 거룩한 천사를 거느리  
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나를 보리  
다. 무릇 마음을 다하여 나를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는 잘리워 버림 받으리라.”

열쇠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 가운데 오는 그 날  
에 내가 열 처녀에 관하여 이야기한 비  
유가 성취되리라.

“지혜로워서 진리를 받아들이며 성령  
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속지 아니하

---

저들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옷을 입고  
거룩한 천사를  
거느리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나를 보리라.  
무릇  
마음을 다하여  
나를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는  
잘리워 버림 받으리라.”

---

는 자는……잘리워 불 속에 던지우지 아  
니하고 그날을 견딜 것이요.”(교성 45  
: 35, 39—44, 56—57)

그들은 “지혜로워서 진리를 받아들이  
며 성령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속지  
아니한 자”(교성 45 : 57)입니다. 나는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할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안전하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중한 사람이란 성령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속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날에 잘리워 불에 던져지지 않고 살아 남게 될 것입니다.

“땅을 유산으로 받으리니”에서의 이 땅은 우리의 원수들에게 유산으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속지 아니한 자”들이 “땅을 유산으로 받으리니, 번성하여 강하여지고 그 자녀들은 죄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리라.

“이는 주께서 저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요, 주의 영광이 저들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주께서 저들의 왕과 임법자가 되실 것임이라.”(교성 45 : 58-59)

나는 주님께서 “성령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신은 진리의 영입니다. 주께서 위에서 말씀하셨고, 나도 이제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늘의 계시로 인도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우리가 그러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839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일라이어스 히그비와 함께 워싱턴에 간 일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는 많은 정치가들과 함께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그 당시 반 뷰렌 대통령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시대의 기존 종교와 우리 종교가 어떤 점에서 다르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요셉 형제는 칠펜의 양식과 안수베에 의한 성신의 은사가 다르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점이 성신의 은사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교회

정사, 4 : 42)

우리에게는 성신이 있습니다. 모든 회원은 안수베를 받았으며,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확인받을 때 성신이 나에게로 오도록 지시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성신을 받으라”고 지시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성신을 받고 그의 인도를 따른다면 나는 이 어려운 시대에 보호받아 끝까지 견딜 사람들 가운데 속하게 될 것이며, 성신의 인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준비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얻은 축복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한다. 가족에게 주님을 신뢰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한 느낌을 말하게 한다.
2. “성신을 받고 그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이 어려운 시대에 보호받고 견디어 낼” 것이라는 롬니 부대관장의 말씀에 대하여 토론한다.
3. 가족이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영적, 정서적으로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4. 이 기사에서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읽고자 하는 인용문이나 성구가 있는가 또는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읽고자 하는 보충 성구가 있는가 알아본다.
5. 방문하기 전에 그 가정의 가장을 미리 만나서 간단히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이 신앙과 에비 프로그램에 관하여 가정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가? \*



# 혼란의 시대

극히 보편적이며,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나, 일종의 악의 형태를 띠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어도 나는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저해하고 우리를 낙담시키며, 소망을 말살시키고, 전염성이 더욱 강한 다른 악한 것에 영향을 끼치기가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교묘하고 교활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므로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회의—특히 자신에 대한 회의—또는 절망과 낙심 같은 것입니다. 이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한 연설

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문제되는 것이 그것들 밖에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들은 실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관심사는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라디오에서 보고 듣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신문이나 방송의 주요 제목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개인 일지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우선 저명한 저자 에프 스크트 피츠제랄드(1896~1940)가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고통이 반드시 낙담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관절염이 관절 강직과 다르듯이, 절망은 고통과는 다르게 그 자체가 ‘독소’를 지니고 있다.” (“파탄” 에드먼드 윌슨, 뉴욕, 제임스 로린, 1945년, 77페이지) 누구나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츠제랄드의 말을 빌리자면 절망의 “독소”는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 좀더 자세히 말하면, 암흑의 왕자요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탄은 그것이 우리의 내부에 자리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대개 작은 세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움직이며 점점 자라 번져 나갑니다. 사실 그것은 거의 습관처럼 되고 결국 생활화되고 사고 방식이 되어서 크나큰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맺은 가장 깊은 종교적인 약속인 믿음, 소망, 사랑의 약속을 좀먹어 들어가 우리의 영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게 되어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다운 덕성이 피해를 입거나 적어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우울해지고 곧 다른 사람

---

절망의 “독소”는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  
 좀더 자세히 말하면,  
 암흑의 왕자요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탄은  
 그것이  
 우리의 내부에  
 자리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대개 작은 세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움직이며  
 점점 자라  
 번져 나갑니다.  
 사실 그것은  
 거의 습관처럼 되고  
 결국 생활화되고  
 사고 방식이 되어서  
 크나큰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

마저 우울하게 해서 무시퍼를 즐겁게 만듭니다.

다른 세균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예방약을 써야 합니다. 단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미리 본다면 우리는 그 화살에 덜 놀라게 되리라.”(신곡, “천국편” 제17장 24행)

우리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또 천사는 공중에 날면서 큰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준비하라, 준비하라.”(교성 88 : 92)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시워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 : 30)

두려움은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경전은 준비-예방-가 낙담과 절망을 물리치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금전 문제로 낙담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두 번은 당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느 정도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는 고달픈 것이기는 하지만 절망적인 것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갖지 않고도 지낼 수 있으며,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마 6 : 30)

준비하고, 계획하고, 일하고, 희생하십시오. 시간과 금전을 가치있는 일에 즐겁게 쓰십시오. 최선을 다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

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준비한다면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믿으며 미래를 바라보고 노력하면,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적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나 여전히 생활하기가 힘들고 부담스러운 때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여러분보다 먼저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인기도 없는 남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다시 노아의 이야기를 읽고, 주전 2,500년경에는 인기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고난의 연속처럼 끝없이 광활한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까? 모세에 대한 것을 읽어 보십시오. 바로 왕과의 고된 투쟁을 헤아려 보고, 시내산에서의 40년간의 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과업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경전이 말하듯이 “때가 이르면”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의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까? 예언자 요셉 스미스도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유과 같은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이처럼 충격적이고 혁신적인 말일에서 이 교회를 이끌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최근 30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그같은 신체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그가 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같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그와 같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질병과 사망에 도전한 위대한 인간이 이제는 더 이상 걸을 힘조차 없는 지경에서도 암흑의 권세에 대항하여, “오, 주여 내가 아직 강건하오니 산지를 더 주옵소서”(수 14:11-12 참조)라고 외치던 그 사람의 고통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런 재능이나 능력이 없다는 생각에서 열등감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모세는 언변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어린 아이로 생각하고 그가 만나게 될 인물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예녹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살아 있는 동안 항상 예녹을 기억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젊은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과업에 부름을 받고 “내가 주의 눈에서 돌음이 어떤 연고이니이까? 저는 나 어린 자요 말을 더디 한다 하여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오니”(모세서 6:31)라고 말했습니다.

예녹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있는 용기를 다하여 주저하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는 평범하고 재능도 없고 남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에 대하여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예녹의 신앙이 참으로 컸으므로 하

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니 원수가 대적하러 오는지라 그가 주의 말씀을 말하니, 땅이 진동하여 산이 도망가며 강물이 흐름을 바꾸며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광야에서 들려 모든 민족이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이같이 예녹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은 크더라.”(모세서 7:13)

평범하고 높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예녹이었지만 그의 이름이 지금은 최상의 의인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 이 왕국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 그같은 생각의 유혹을 받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려운 과업에 직면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던 것같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여호수아 3:5)

물론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더 심각한 절망의 근원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증대한 자연의 이치에 따르기 위한 준비가 갖추어 있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세나 영원한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절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법입니다. 그것은 죄악에 근원을 둔 좌절입니다.

일단 자기 잘못의 심각성을 인식하였으면,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간교한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속하여 대가를 치르는 자에게 회개를 약속해 주는 복음을 받아

들었다는 것에 대해 무릎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회개는 불길한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기독교인의 어휘에서 신앙 다음으로 가장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입니다. 회개는 성장과 향상과 진보와 거듭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 안에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탄식의 소리는 “내

가 별 수 있나?”라는 초라하고 불쌍한 탄성입니다. 여러분이 낙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곧 나를 낙담시키는 것입니다. 제발 나에게 “내가 별 수 있나”라는 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한 말은 죄를 짓고자 하면서 그것을 심리학적인 원리로 정당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자주 합니다. 나는 걸으려는 순수한 것처럼 보이거나 낙담과 회회와 절망을 가져다 주는 광범위한 습관 일체를

회개는  
 성장과 향상과 진보와  
 거듭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총괄하여 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 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도 매우 빨리 행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데 어 려 해가 걸리는 것도 역시 일종의 사탄 의 기만입니다. 회개하는 데에는 “내가 달라지겠다.”고 말하는 데 드는 시간밖 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을 것이며 보상도 해야 할 것 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회개했을 것입 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회개했음을 증명 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행동으로 보일 필요도 있으며, 사실 그렇게 하는 편 이 좋습니다. 그러나 변화, 성장, 거듭 남, 회개는 엘마와 모사이아의 아들들에 게와 마찬가지로 즉시로 올 수 있습니 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진다 해도 이들 젊은이들을 묘사한 물몬의 말대로 “죄인 가운데서도 극악한 자”라는 말에 걸맞을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엘마서 36장에 기록하였듯이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 났습니다.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다거나 또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회개는 지옥과 같은 쓴 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는 데 필 요한 일시적인 고통은 오히려 그 죄 안 에 영구히 거하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 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지옥에 사는 사탄뿐일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 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변화될 수 없 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변하기에는 시 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어렵다. 포기하라. 회개하지 말라. 너는 지금의 방 식을 그대로 고수하라.” 친구들이여, 그 것은 절망에서 오는 거짓말입니다. 그것

을 믿지 마십시오.

경전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경전에 여러분이 경험한 것과 같은 경험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 에서 여러분은 영과 힘을 발견할 것입 니다. 해결책과 권고의 말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 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 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십시 라.”(나이 32 : 3)

헌신하는 태도와 뚜렷한 목표를 가지 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십시오. 악마 와 같은 어떤 어려움은 금식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 17 : 21 참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다 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때에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신앙을 가지십시오. “기적의 날이 다 한 것이라 하겠느냐?

“혹 천사들이 인간에게 나타나기를 그 쳤느냐? 혹 주가 저들에게서 성신의 권세를 거두시었느냐? 또한 시간이 지 속되며 땅이 존속하며 땅 위에 단 하나 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 한 하나님께 서 이같이 행하시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라……오직 신앙으로 인하여 천사가 인 간들에게 나타나 은총을 베푸는 것이어 늘……”(모로 7 : 35-37)

예언자들에게만 알려진 권능을 지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앗수르 민 족에게 대항하는 방법과 장소 및 시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물론 앗수르의 왕은 그의 군대로 이 예언자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없애고자 하였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군사와 말과 병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왕하 6 : 14-15)

그때의 상황은 엘리사를 절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편이라고는 오늘날의 교사 정원회 회장적인 청년 한 명뿐이었습니다. 한 명의 예언자와 한 청년이 세상을 대적하여야 했습니다. 청년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적이 사방을 에워싸 도처에 어려움과 절망과 문제와 곤경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떠날 수도 없었으며, 보이는 것이라고는 자비가 없고 악이 만연한 성뿐이었습니다. 신앙이 흔들린 청년은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왕하 6 : 15)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왕하 6 : 16-17)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장막의 양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결코 이 사실을 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절망하고 낙심이 될 때라도 우리가 눈을 뜨면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속력으로 달려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하늘의 천군은 항상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약속으로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

헌신하는 태도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십시오.  
악마와 같은  
어떤 어려움은  
금식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 17 : 21 참조)

---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어린 아이라.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가지고 계시며 또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셨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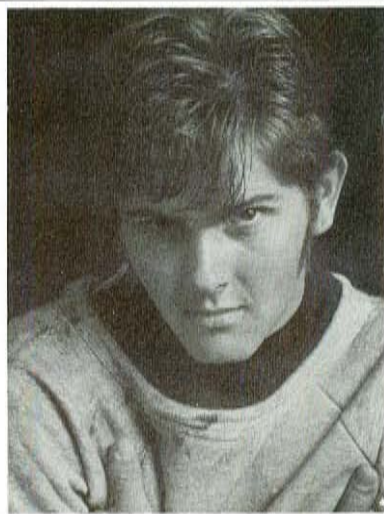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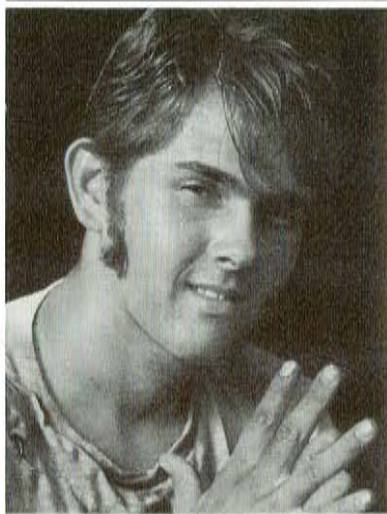
“또 너희는 지금 모든 것을 감당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나 기운을 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임이니,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임이므로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

“……왕국은 너희 것이요, 그 축복도 너희 것이요, 영원의 재물도 너희 것이니라.”(교성 78 : 17-18 ; 84 : 88 ; 78 : 18)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준비한 그 땅에 가리니” 그리하여 우리는 “노래 소리 찬미 소리 울리는 그곳 만드러, 모든 백성 말하리라 모든 것 잘되리.”(찬송가 86장)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동기를 부여하



남미의 어느 마을을 방문한 일단의 여행자들은 깨진 유리 조각과 양철 깡통 뚜껑을 사용하여 양의 털을 깎는 잉카 제국의 후에들을 보게 되었다. 여행자들은 그 지방의 지도자들을 초대하여 마을 한 복판에서 금속제의 가위로 양털깎는 시범을 보여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흥미있게 지켜 보았으며 이 새로운 도구로 같은 시간 내에 양털을 열 배나 더 깎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후로 그들은 이 양털 깎는 가위를 사서 사용하였다. 효율적인 가르침은 크나큰 변화를 가져 온다.

교회에서도 효율적인 가르침은 어린이나 청소년 및 성인의 생활에 가치있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 복

음을 가르치는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 어떤 것이 그 목표가 되어야 하겠는가?

그 목표는 반원의 머리 속에 "지식을 쏟아 붓는 것"이 아니다. 교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과시하는 것도, 또한 교회나 복음에 대한 지식을 넓히려는 것만도 아니다. 교회에서의 가르침의 기본 목표는 사람들의 생활에 가치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도록 돕는 것이다. 그 목표는 개개인으로 하여금 복음 진리와 원리에 대하여 생각하고 느끼면서 무엇인가 행하도록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원리를 개인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데 필요한 단계를 무시하고 복음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



# 복음 교육



다. 원리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리를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문을 열어 주는 것이 훌륭한 가르침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효율적인 가르침에는 반원이 반의 문을 들어설 때, 그의 지식의 범위, 즉 그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그가 반에서 나갈 때 어떠한 면으로든 변화되지 않았다면 시간을 허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원이 반을 떠날 때에는 그가 영향을 받아 좋은 방향으로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복음의 원리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어 일상 생활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율적이며 진정한 의미의 학습에는 다음 세 가지 단계가 포함된다.

**1. 지식의 확장.** 복음 교육이 지식의 확장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물론 이 지식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원리에 대하여 아는 것은 하나님 의 왕국에서 진보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성공적인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나, 그것은 다만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2. 심화된 감정 또는 태도의 변화.** 반원이 복음과 그 원리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것이므로 교사는 스스로 바른 길에서 반원이 선에 대하여 깊이 느끼고 간

---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원리에 대하여

아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진보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성공적인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다만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

증을 강하게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3. 행위. 대개의 경우에서 이 세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신권 조직, 보조 조직, 또는 신학 연구원에서의 복음 공과는 학생들이 각자의 생활 태도를 바꾸고 가치있는 변화를 가져 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과가 기도에 관한 것이라면, 훌륭한 교사는 반원들이 기도가 무엇이며, 왜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이해하도록 도와 준다. 그는 또한 반원으로 하여금 기도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느끼게 도와 준다. 교사는 반원에게 오늘과 내일, 그리고 매일 기

도하도록 격려해 준다.

효율적인 복음 교육의 목표가 사람들의 생활에 가치있는 변화를 가져 오는 것임을 인정할 때, 어떻게 교사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하게 된다.

첫째, 유능한 복음 교사는 반원이 공과 내용과 공과에서 강조하는 원리나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공과가 금식에 관한 것이라면, 교사는 반원에게 원리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금식하며, 왜 금식을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 원리를 실제의 생활에 적용시키기를 원하게 된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과 개인적으로 아무런 연관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저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조차 한다. 더 많이 이해하게 되면 행동의 문이 열리고 그리로 가는 길이 더 순조로워진다.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의 중요한 단계는 되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둘째, 훌륭한 교사는 반원들의 느낌과 확신을 길게 함으로써 반원이 실천하도록 도와 준다. 교사가 반원으로 하여금 금식이란 금식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할 때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교사가 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간증을 말하고 반원과 함께 그의 확신을 나누는 것이다. 개인적인 간증은 다른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뉴욕과 동경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전시관을 둘러본 후 교회에 가입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가장 인상깊었던 것이 아름다운 물몬관을 관람한 후, 선교사가 진지한 음성으로 말하는 다음과 같은 간증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이와 같은 간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사는 “지나치게” 간증을 해서는 안되며 다만 적합한 때에 간증하여야 한다. 개인의 확신을 특별한 때에, 진지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더욱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반원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방법은 가르치는 원리나 개념을 설명해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반에서 나누었던 놀라운 경험으로 인하여 많은 반원이 자신의 생활 태도를 바꾸게 된 동기를 부여받았다. 교사가 그와 같은 경험담을 나누는 외에도 반원이 그들 자신의 활동과 간증을 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어느 십대 청소년은 신권반에서 교사가 그의 형이 담배를 끊은 개인적인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한 이야기를 들은 후 담배를 끊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며 그런 실행의 좋은 점을 보여 주었다.

훌륭한 교사는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는 것에 관한 감정과 확신을 갖게 해주는 이야기와 경험담으로써 공과를 풍부하게 이끌어 노력한다.

세세, 유능한 교사는 반원에게 공과가 강조하는 바를 실행하도록 요구한

다. 이것은 구체적인 권고나 과제로 내주어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단계에 이르렀다가는 여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원에게 배운 원리를 실행하도록 문을 열어 주는 일이다.

이 단계의 중요성은 교회 개종자가 된 일가족 다섯 명의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은 부근에 말일성도가 많은 동네에 살면서 복음에 대하여 많이 배웠다. 그후 그들은 선교 지역으로 이사하였다. 그곳에서 한 물몬 선교사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곧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 누군가가 “왜 더 일찍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라고 묻자 그 가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무도 교회에 가입하라고 청하지도 않았고 교회에 나가자고 권하지도 않았었는 걸요.”

실천과제가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2세 소년들에게 매일 기도하고 십일조를 바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선행”을 하라고 부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제는 실질적이고 달성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이 실제로 가치있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는 그것을 잘 잊지 않게 된다. 뭔가 가치있는 일을 행하도록 권하는 것은 효율적인 가르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보고를 받거나 확인을 하여 실행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효율적인 교사는 이러한 단계를 훌륭하게 수행하여 사람들의 생활에 가치있는 변화를 이룩한다. 헨리 브룩스 아담스의 말과 같이, “교사는 영원한 영향을 준다. 교사는 자신의 영향력이 어디에서 그치는가는 말할 수가 없다.” \*

# 배움은 모든 사람의 과업

조 제이 크리스텐슨

전직 교회 교육 기구 부책임자

우리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진실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나 신학 연구원이나, 신권 정원회나 가정의 밤이나 주일학교에서 종교반에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그곳에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업은 우리에게 가능한 가장 훌륭한 지적, 영적인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신도의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배우지 않는다면 누가 그러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심오한 철학자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되었습니까? 현재의 어머니 또는 장래의 어머니가 될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르치기에 충분한 복음을 배우지 않는다면 누가 배우겠습니까? 모두 선교사이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메시지를 여러분이 배우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가 한 세대도 못가 사멸되고 말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효율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세대나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진리를 효율적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도덕 관념을 허물어뜨리게 된 주요 원인은 그들에게 참된 원리에 입각한 효율적인 종교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도 책임을 이행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금전을 들여서 계획하고 조직해 나가므로 어느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먼 거리를 차를 타고 가게 된다 해도 자녀를 초등학교, 신학 연구원, 교회 주최의 소년단 활동, 주일학교, 성찬식 모임 및 정원회 활동에 참여시킵니다. 우리는 부모와 교사들이 가르칠 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천 수만 권의 교재를 발행합니다. 우리는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 학교, 대학, 종합 대학까지 설립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이 우리 영들에게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증거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이 바로 진실된 “종교 교육”의 기본되는 요인입니다. 이 영이 없이는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이 영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로는 보장되어 있고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

---

# 오파포

## 그의 신앙의 힘

칼 포노이모아나



나는 오파포 할아버지를 항상 믿음이 강한 분, 열심히 일하시는 분, 많은 사랑을 받는 분으로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나는 자라면서 그가 단지 나의 할아버지에 그치는 인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위치를 맡으신 분이였다.

1859년에 그가 태어난 사모아의 포가투리 사바이 마을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가난한 나라 중서도 포가투리는 더 가난한 마을이었다. 오파포의 가족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머니 말리아토아는 포가투리의 유지 가문에 속해 있었으나 포노이모아나라고만 알려진 아버지는 우베아(현재의 윌리스 섬 서편으로 800킬로미터 떨어진 곳) 출신으로 폭풍우에 휘말렸다가 해안으로 밀려온 이방인이었다. 포노이모아나는 통가 혈족이었으므로, 일생 동안 그 마을 사람들과는 흉금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되지 못했다.

오파포의 일생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그가 젊은 시절에 꾸는 꿈이었다. 꿈에서 그는 두 사람의 외국인 선교사가 그의 마을에 와 그의 움막으로 들어와 앉는 것을 보았다. 꿈은 거기서 끝났다. 그러나 몇 년 후에 말일성도 선교사 두 명이 그의 집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그들이 꿈에 나타났던 사람들임을 깨달았다. 또한 영은 그들이 전하는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시켜 주었다.

이분은 사모아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사모아 선교부가 문을 연 후, 2년 뒤인 1890년에 그와 그의 아

내 토아이가 칩체를 받았다. 1890년경 사모아인들은 이미 기독교 교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런던 선교 협회가 1830년에 선교를 시작하였으며 뒤이어 천주교와 감리교의 선교 사업이 이어졌다. 구세주에 대한 깊은 신앙을 축복으로 받은 사모아 주민은 영적인 은사와 기적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나의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여, 고전을 면하지 못하는 이 작은 교회에 가입하였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표적은 충실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유난히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유감스런 일이나, 구세주를 경배하고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무리를 간에도 심한 적대감이 자리잡고 있었다. 물론은 뽀박과 조롱을 받았으며, 요셉 스미스가 농가에서 자랐다 하여 물론에게 “카우보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하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파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 말일성도를 사이에 지도자로 인식되었다.

1904년에 그와 다른 몇몇 사람들은 우폴루 산 속에 성도들을 위한 작은 성지, 사우니아루(“앞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라는 정착지를 세웠다. 첫번째 예배당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배당 뒤에 있는 작은 부엌에서 불이났다. 성도들이 강에서 물을 길어 불을 끄려 애썼지만 불길은 급속히 번져 나가 예배당 건물도 불길에 휩싸일 지경이 되었다. 그때 사람들은 오파포가 예배당 꼭대기로 올라가 용마루에 걸터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오른손을 올리고 하늘을 보며 말하였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작은 집을 버릴 수 있으나 큰 집은 배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스러운 신권의 권

“아버지시여,  
우리가  
작은 집을  
버릴 수 있으나  
큰 집은  
태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스러운 신권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바람은  
그 방향을  
바꾸라.”

능으로 명하노니, 바람은 그 방향을 바꾸라.”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작은 집은 무너졌고 예배당은 고스란히 보존되었다. 예배당이 보존되었을 뿐 아니라 그 어려운 시기에 사우니아투의 성도들의 신앙이 강화되었다.

그는 또한 예언의 은사를 축복받아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한번은 그가 3개월간에 걸친 여러 섬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한 젊은 남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피아피아(축하연)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신부가 될 처녀와 집전을 하다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그녀에게 만일 그 남자와 결혼하면 끝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였다.

오파포와 토아이에게도 개인적인 시련이 있었다. 그들의 열 네 자녀 중에서 열 한 명이, 성인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

났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겸손과 기도와 근면함을 더욱 키우게 된 것 같았다. 오파포는 오전 5시와 오후 5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자주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그는 항상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 특히 과부와 고아의 생계를 도와 주었다.

그는 또한 미국인 선교사를 동반자로 하여 타지에서 여러 차례 선교사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선교 여행 중에 오파포와 그의 죽마고우인 엘리살라 그리고 한 명의 미국인 선교사가 마누아섬으로 간 것을 들 수 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그곳의 왕, 루이마누아가 모든 주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말일성도를 받아들이거나 도와 주면 즉시 돌로 쳐 죽인다는 법령을 내려 선교 사업을 금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두 달 동안 해변에 머물

그러나  
선교사들은  
두 달 동안  
해변에 떨어지는 코코넛을 먹고  
동굴에서 잠을 자면서  
성공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들은  
모기에 물리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를 앞으로 가리고 잠을 자야 했다.  
매일 밤  
한 사람씩  
교대로 불침번을 서며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가린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게 하며  
모기에 물리지 않게  
지켜 주었다.

지는 코코넛을 먹고 동굴에서 잠을 자면서 성공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들은 모기에 물리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를 앞으로 가리고 작을 자야 했다. 매일 밤 한 사람씩 교대로 불침번을 서며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가린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게 하며 모기에 물리지 않게 지켜 주었다.

이같은 견디기 힘든 시련 속에서 몇 주간을 보낸 어느 날, 오파포는 근처에 있는 바구니에서 풍겨 나오는 것 만들어 낸 음식의 냄새에 눈을 떴다. 선교사들은 이것이 인간이 보내 준 선물인지 하늘로부터 온 만나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여러 주일 코코넛으로만 연명해 왔던 그들은 음식이 더없이 고맙기만 했다. 바로 그들에게 음식을 날라다 준 그 할머니는 그들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계속 음식을 날라다 주었다. 그 할머니는 만일 이러한 친절을 베풀어서 죽어야 한다면 죽겠으며, 투이마누아를

두려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거리 저 거리를 헤메고 다닌 끝에 지친 선교사들은 마침내 떠날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오파포와 엘리살라는 공식적으로 투이마누아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배에 오르기 전 오파포는 마을 어귀에 잠시 멈추어서 그 섬에 대한 반의를 표시하는 증거로 발의 먼지를 털었다. 약 두 주일이 지난 후, 무서운 태풍이 섬을 강타하여 많은 인명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으며, 거의 모든 집들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 그런데 단 한 집, 선교사들을 도와 주었던 할머니의 움막만은 폭풍우에 쓰러지지 않았다.

그 기적은 믿는 자들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해주었으나,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지는 못하였다.

1974년에 가서야 실제로 마누아섬에



지부가 조직되었다. 반면에 귀환한 오파포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신앙이 더욱 강해졌다.

곧 오파포와 토아이는 가족을 데리고 사우니아투에서 투투일라섬으로 이사하였다. 이는 하와이로 이사하여 그곳 성도들과 합치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 투투일라에서의 핍박은 극심하였다. 그로 인하여 오파포는 몹시 서운해 하였으나 결코 신앙이 약해지지는 않았다. 한번은 그가 친구인 피비무아 솔리아이와 함께 광고광고쪽으로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버스를 향해 태워 달라고 손을 들었다. 버스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속력을 늦추어 다가왔으나, 그들이 물론 선교사임을 안 버스 운전 기사는 갑자기 악세레이터를 밟아 그들에게 먼지를 함박 쏘우고는 떠나가 버렸다. 시무록해진 솔리아이 형제가 오파포에게 말하였다. “아이구, 이거 마을까지 가려면 한참 걸려야겠군.” 그러자 오파포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야, 우리가 저 버스보다 먼저 도착하게 될걸세.” 그들이 약 1,5킬로미터쯤 걸어갔을 때 그들은 어떤 사고 현장을 목격하였다. 조금 전의 버스가 트럭과 정면 충돌하였는데 버스 운전 기사는 죽사를 했던 것이었다.

솔리아이 형제와 그의 가족은 투투일라의 누울리 마을에서 유일한 말일성도였다. 한번은 그가 오파포에게 와서 자녀와, 집과 재산과 친구들을 축복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 축복의 이야기가 부유한 비회원인 미망인 살라타이마 푸아일로아의 귀에 전해졌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유산으로 받은 땅을 시역에서 빼앗으려 했기 때문에 몹시 곤란을 당하고 있던 터였다. 축복 기도에 감동을 받은 그

녀는 자기에게도 축복을 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회원이 아니었으므로 오파포는 그녀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교회에 대하여 공부하고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는 다시 그에게 와서 축복을 청하였다. 오파포는 그 축복에서 그녀가 남편 친척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 땅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었으며, 그녀의 신앙심이 깊어지면, 미명 사모아에서 교회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일에 그녀가 주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다. 1950년대 초, 그 축복이 성취되었다. 교회는 그녀의 땅 일부를 사들여서 고등학교, 공장, 대규모 복지 농장, 스테이크 센터 등을 지었다. 1926년, 오파포와 토아이는 나의 아버지 테일라를 하와이로 보내어 하와이 이주를 준비시켰다. 2년 후, 교회는 할아버지에게 하와이 신전에서 사모아인을 위한 신전 사업을 행하도록 부름을 주었다. 1935년, 할머니께서는 70세의 나이에 폐염으로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일생을 교회와 남편을 도우며 충실하게 보낸 후, 하와이 라이에에 묻히셨다. 토아이와 마찬가지로, 오파포 할아버지도 81번째 생신이 거의 다가왔을 때 폐염으로 돌아가시어 할머니 곁에 묻히셨다. 나는 할아버지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손자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의 신앙으로 인해 나의 신앙도 강하여짐을 느낀다. 그가 보인 은사는 사모아 군도의 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려운 때, 그 주민들에게 복음이 진실하고 신권은 하나님의 권능을 대표하며, 구원의 계획은 진실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임을 증거해 주고 있다.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가 남긴 축복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 \*

한국 전쟁 때의 일이었다. 나는 선교사 생활에서 갖 귀환하여 조지아 주 고든 부대의 육군 통신대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나와 함께 기본 훈련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귀환 선교사 아홉 명을 포함하여 오십 명의 말일성도들이었다. 우리는 곧 성찬식을 갖기 위해 군사 오락실 사용 허가를 신청하였다. 분대장은 처음에 매우 놀라는 듯했으나, 우리에게 허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방을 깨끗하게 정돈해 주고 성찬식에 사용할 컵과 빵을 군대 식당에서 얻을 수 있게 주신해 주었다.

갯벼룩, 수면 부족, 취사 보조, 보조 임무, 그리고 실세없는 명령 등의 틈바구니에서 매주 일요일에 갖는 영적인 차별한 시간은 진정한 즐거움이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한 무뚝뚝한 비회원 상사의 출현으로 모처럼의 그 평정의 시간을 다소 방해받았다. 그는 병영에서 말일성도 신병들을 이끌고 온 후 의자에 앉아 모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연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는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냉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모임이 끝나자 훈련병들을 모아 다시 행진하여 갔을 뿐이었다. 그

이후로 신병들은 그들끼리만 왔다.

훈련소 “졸업” 시험인 사흘 동안의 일선 임무와 전투 훈련이 몇 주내로 다가왔으므로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는 모두 잊고 있었다. 전투가 시작된 지 이틀째 되던 날 “적군”이 아군 부대를 급습하여 수명을 사로잡아 갔다. 우리 모임에 참석하였던 상사가 포로로 잡힌 것은 아닌데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날 밤, 작은 모닥불을 피워 놓고 주위에 둘러앉아서 휴대 식량을 먹고 있을 때, 인기척이 나서 우리는 바짝 긴장하였다. 우리는 음식을 내려놓고 총을 움켜 쥐고는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갑자기 저쪽 전선 너머에서 “요셉 스미스가 누군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라는 소리가 들려 왔다. 우리는 모두 시선을 교환하였다. 말일성도들은 이것이 계탁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었으며 비회원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 마침내 한 용감한 병사가 뒤에서 외쳤다, “알구 말구요.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그러자 전선 위에서 기쁜듯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제대로 찾았구나!” 하는 소리와 함께 상사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





# 할아버지 해스티

테리 데일

성찬식이 끝나자 감독님이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나를 사무실로 부르셨다. 나는 기대했던 것이 이제 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틀림없이 교사 정원회의 회장이 될거야. 나는 흥분과 자랑스러움으로 가슴이 벅찼다. 야! 와드 회원들이 모두 내게 축하해 주겠구나. 어머니가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실거야!

나는 감독님 맞은 편 큰 의자에 앉았다. 감독님은 편안한 느낌을 주는 분이셨다. 항상 그렇듯이 미소를 짓고 계셨으나 나는 이 대화가 중요한 대화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스티브 형제님, 형제님에게 임무 하나를 맡기려 하는데요.” 그가 말하였다. 나의 가슴은 마구 뛰었다.

“이것은 특별한 ‘좋은 이웃’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해스티 맥파란씨에 대하

여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좀 외로운 노인이시라는 것을 형제님도 아시지요? 그분에게는 누군가 친구가 되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분이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때 무척 당황한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해스티씨를 알지요?” 감독님이 물으셨다.

두어 주일 전 친구들과 함께 그 노인을 놀려 대던 생각이 났다.

“네, 압니다. 노인은 변두리에서 혼자 사시지요.” 나는 실망과 죄책감을 애써 감추면서 대답하였다.

“그때, 맞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그

분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외에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감독님은 나의 실망을 눈치채셨는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당기고 나를 찬찬히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이 임무가 과중하다면 말지 않아도 돼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감독님은 미소지으면서 곧 다음 말을 이었다. “벨나무도 패드리고, 음식이나 침구나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 드리세요. 친구가 되어 드리도록 하십시오. 형제님 아버지께서도 이 임무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형제님을 돕겠다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도와 주실 겁니다.”

“네, 감독님.”

당시 나는 15세였으며,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축구, 사냥, 낚시, 또는 친구들과 같이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더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감독님께 그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하였고,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하지 않는 일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해스티씨는 내가 자라난 아이다호 농촌 지역에서 좀 떨어진 산 밑 작은 통나무집에서 살고 있었다. 학교가 끝난 후 처음으로 그의 오두막집을 향하여 한참이나 산을 오르면서 나는 길가의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해스티씨의 의로움을 말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일년에 단 한번 성탄절에, 이 노인은 경찰의 특별 허가로 호텔에서 무료로 목욕을 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 노인이 일년 동안에 목욕하는 것은 그때 뿐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그의 머리 한쪽에 혹이 나 있고 검은색 안대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가 해적같다고 말했었다.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 물론 심지어는 마을 어른들까지도 버릇처럼 그에게 함부로 말을 하며 놀려대곤 했다. 그 노인은 나도 자기를 놀려댄 사람 중의 하나라고 기억할까?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오두막집 앞에 선 나는 몹시 두려웠다.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나는 노인이 분명히 안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가 어디를 갈 수 있겠는가?

“할아버지!” 나는 기어 들어가는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오랫동안 서 있다가 마침내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작정을 했다. 문을 밀자 두꺼운 참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해스티 할아버지!” 다시 불렀다. “아무도 안계세요?”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한껏 목을 빼어 머리를 문 안에 디밀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오두막집은 냉기가 감돌고 어두웠다. 침대에 있는 사람의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해스티씨는 앞으로 몸을 수그리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 다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았다. 그가 깔고 앉아 있는 더럽고 곰팡이내 나는 담요에 온통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 드릴 일이 없어요?” 나는 간신히 말을 하였다.

나는 내 이름과 말일성도 교회의 감독님이 할아버지를 도와 드릴 일이 없는

지 알아보라고 해서 왔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아무 말도 없이 나를 응시하는 바람에 나는 질려버렸다.

“할아버지, 불이 꺼졌네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 도끼와 나무 토막을 찾아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도끼를 내리 칠 때마다 나는 속으로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내가 이려고 있지? 왜?

그때 “불평은 그만 뒤.”하는 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 왔다. “너는 출고 외로운 이 노인을 돕고 있는 거야.”

나는 불을 피웠으며,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려 하였다. 그러나 잠시 후 나는 그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알았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새 담요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두겹고 깨끗하고 포근한 새 담요를 하나 갖다 드리겠다고 말했으며, 다음날에 그 약속을 이행하였다. 그 후로 나는 하루 질러석 할아버지의 오두막집을 방문하였다. 여러 주가 지나자 서서히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에 그가 물었다. “애야, 너는 왜 여기 오는거냐? 너 같은 아이들이야 나처럼 병든 늙은이를 찾아오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 텐데. 네가 찾아오니 나는 기쁘지만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웃었다.

추수 감사절에 나는 해스티 할아버지를 집에 초대하였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그에게 음식을

갖다 드렸다. 그는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방문을 계속하면서 나는 해스티 할아버지가 양치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때는 그에게도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으나 무서운 열병에 걸려 죽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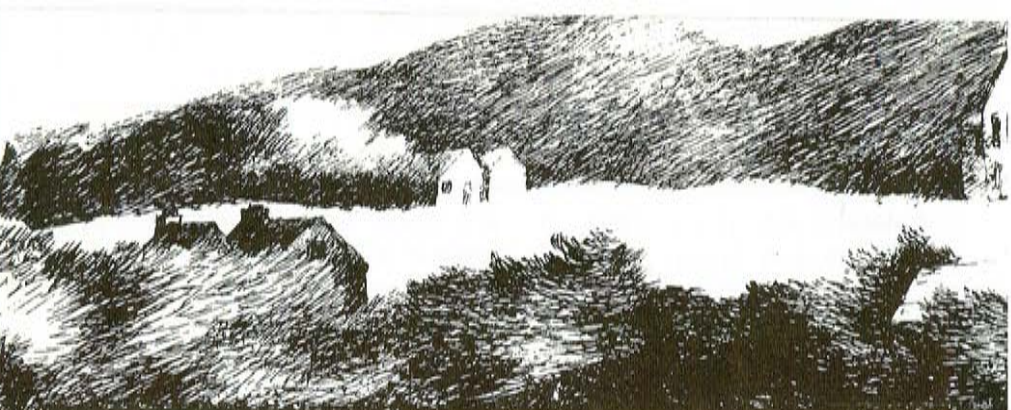
인생이 산산조각난 듯한 슬픔에 해스티 할아버지는 방랑자처럼 온 나라를 헤매며 떠돌아다녔다. 게다가 얼굴 한쪽에 종양이 나서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되었고, 불림과 비웃음을 받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해스티 할아버지가 못생겼다거나 무섭게 보이지 않았다. 사실 나는 학교가 끝나면 부지런히 그의 오두막에 가서 그를 도와 주며 이야기를 들었다.

성탄절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또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였다. 이번에는 그가 초대에 응하여 깨끗하고 멋진 양복을 입고 왔다. 아주 멋있어 보였다.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우리에게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즐거워하였다.

식사가 끝나자 할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숙이시더니 고개를 들고 말씀하였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좋은 분들입니다. 오랫동안 나는 비참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여 주신 사랑으로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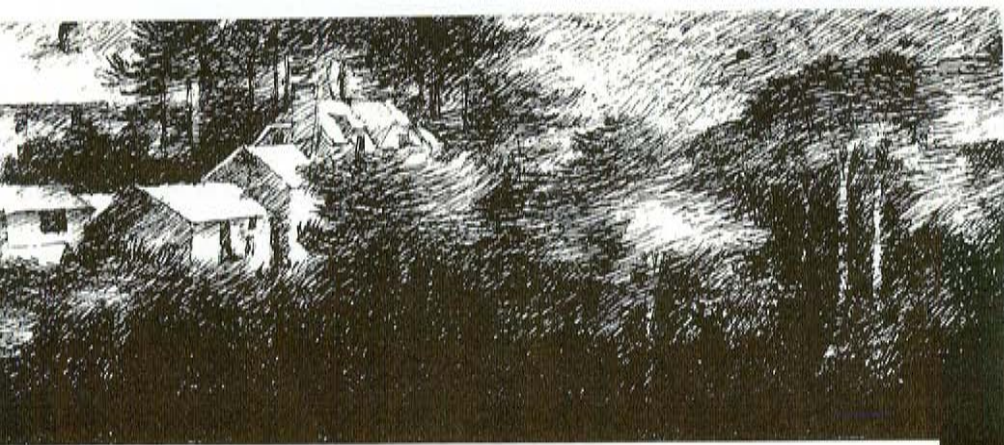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참으로 좋은 느낌이었다. \*



어둠 속에서 비친 **빛**

토마스 제이 그리피스





와 드의 금식 간증 모임이었다. 몇몇 젊은이들이 일어서서 주님의 선하심과 그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축복에 대하여 간증하였다. 그들의 간증이 끝나자 한 노신사가 일어섰다. 얼굴에는 주름살이 많았고 세월은 그의 머리를 은빛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서리 내린 아침의 종소리처럼 맑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의 운명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주께서 내가 어린 시절에 드린 기도를 들어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말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래 전 12세의 소년이 직장에 다니게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다.

그는 웨일즈 지방의 작은 탄광촌에서 살았다. 그곳 남자들은 대부분 탄광에서 일을 하였다. 몇 주일이 지나면 그는 12세가 되며 마을의 다른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석탄을 캐러 갱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소년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학교 가는 길에 그의 생애에 영향을 주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는 두려움이 무엇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다.

광부들이 살고 있던 촌락 쪽으로 오는 작은 행렬이 보였다. 두 사람이 들것을 들고 한 사람은 그 앞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탄가루로 까맣게 되어 있었다. 들것에는 작은 체구의 시신이 누린 모포에 덮여 있었다.

“저게 누구요?” 누군가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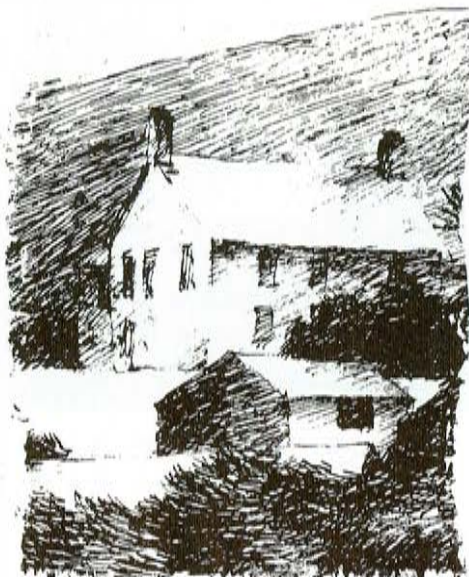
“어린 데이비 에드워즈요. 갱이 무너지는 바람에 밀에 깔렸어요.”라고 앞에 있는 사람이 대답하였다.

소년은 학교로 갔으나 생각은 학교 공부에 있지 않고 데이비 에드워즈에게 있었다. 그들은 함께 산에서 뛰어 놀았었다. 그들은 함께 밤송이를 따기도 했고 기온 강둑에서 검은 딸기를 따

---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의 운명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



기도 했었다. 그들은 황금빛 금잔화밭이 끝나고 수목림이 시작되는 곳에서서 뼈곡새의 봄을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도 있었다.

그는 생각하였다. “그래 그런 날들은 이제 지나갔어. 곧 메이비는 반바크 언덕 묘지에 묻히고 나는 탄광에 가서 일을 하게 되겠지.” 생전 처음으로 그는 두려움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 두려움은 그의 마음속 한 구석을 차지하였다.

그가 열두번째 생일을 맞이하자 아버지는 그에게 다음 월요일부터 탄광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토요일 오후에 아버지는 그를 메리고 마을 읍내에 메리고 가서 두더지 가족으로 만든 바지 한 벌과 웨일즈 지방의 프란넬 셔츠 한 벌을 사 주었다. 또한 도시락통과 물통, 그리고 바지의 다리 부분에 탄가루가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릎 아배에 대는 가죽 끈을 사 주었다.

월요일 아침은 춥고 축축했다. 그러나 소년의 마음처럼 차지는 않았다. 소

년은 경험이 많은 광부인 메이 켄킨스씨와 한 조가 되어 일하게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조가 되어 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한 가정에서 두 사람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는 메이 켄킨스씨 옆에 서서 승강기를 타고 갱내로 내려갔다. 광부들의 헬멧에 달린 희미한 램프 빛을 통하여 그는 아버지를 건너다 보았다. 아버지가 그에게 미소로 답해 주었다. 아버지의 곁에는 역시 12세된 소년이 서 있었다.

승강기가 쾅하고 밑바닥에 내려앉았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자 말과 당나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동물들은 석탄을 실은 마차를 갱 밖으로 끌어내고 빈 수레를 끌고 오는 일을 맡고 있었다. 말구종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동물들을 관리하였다.

소년은 동반자를 따라 좁은 통로를 지나 그들이 일을 하게 되는 터널 끝에 이르렀다. 메이씨는 자켓을 벗어 친정을 받치고 있는 강목에 붙씩 나와 있는 못에 걸었다. 그는 도시락통과 물통도 그곳에 걸었다. 소년도 따라 했다.

탄층이 겨우 1미터 두께였기 때문에 메이씨는 몸을 구부려 곡괭이를 휘두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캐낸 석탄을 수레에 실고, 찌꺼기 물들은 다른 수레에 담아 넣는 것이 소년의 책임이었다. 그러면 다른 일꾼이 그것들을 갱바닥에 있는 승강기에 실어 땅 위로 올려 보낸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자, 암흑에 대한 소년의 증오는 날이 갈수록 커졌다. 위험한 때도 여러 번 있었다. 친정을 받치고 있는 강목이 무너져 메이씨와 소년이 깔려 죽을 뻔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럴 때마다 소년은 친구 메이씨가 생각났으며, 자기도 누런 모포에 싸워져 들것에 실려 집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소년에게 참으로 즐거운 시간은 메이씨가 곡괭이를 내려 놓으며 “자, 애야, 이리와서 점심이나 먹자.”하고 말하는 때였다.

그들은 함께 회미한 등불 밑에 앉아서 도시락통에 든 음식을 먹었다. 때때로 메이씨는 아내가 만든 웨일즈식 케익을 소년에게 주기도 하였다. 그것이 소년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어느 날 메이씨가 곡괭이로 파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터널을 파 들어가다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그것은 조그마한 방만 했다. 천정은 단단한 바위로 된 것 같았다. 어깨 높이 정도에 벽을 가로지른 선반이 있었다.

그날 그들이 함께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같은 소리가 온 광산을 뒤흔들었다. 왜 그렇게 큰소리가 나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 온 땅이 흔들렸다. 메이씨가 필적 뛰면서 소년을 팔로 감쌌다.

“폭발이다. 불이 났을거야. 간막이 천으로 동굴 입구를 막아야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것 뿐이야.”

그들은 급히 두꺼운 형질을 작은 굴 입구에 못으로 고정시켜 놓고 앉았다. 그들은 곧 불길이 가까이 번지고 있음을 느꼈다.

밖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광구로 몰려들었다. 구조반원이 갱내로 들어갔다 곧 다시 나왔다.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보고했다. “갱 속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 주십시오.”

주주들이 모여 가까이 뚫던 터널을 통해 갱 속으로 들어가 불을 끄기로 재빨리 결정을 내렸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라는 한 여인의 울부짖음에 그들은 다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작은 굴 속의 열기는 참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약간의 공기가 들어오고 있음을 느꼈다. 시간이 정지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때 그들은 물 소리를 들었다. 굴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발등까지,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리고 계속 물이 불어났다.

메이씨는 선반 위로 올라가 소년을 끌어올려 옆에 앉혔다. 물이 차 오르자 불이 꺼졌다. 그리자 무서운 침묵이 흘렀다. 메이씨가 말했다. “애야, 너 기도할 줄 아니?”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소년이 대답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보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다.”

소년은 눈을 감았다. 잠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는 천천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도움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한번만 더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발로 산을 넘어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새의 노래 소리를 듣고 태양이 라이소그 산 너머 떠오르는 것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외롭습니다. 주님의 도움

이 필요합니다. 아멘.”

소년은 메이씨의 팔이 자기의 어깨를 감싸는 것을 느꼈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 “고맙다, 애야. 이제 두렵지 않다.”

시간이 흘렀고 그들이 잠든 것으로 보아 밤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들이 잠에서 깨었을 때 등불은 꺼져 있었다. 완전한 암흑이었다. 공포와 추위로 온몸이 떨렸다. 소년은 자신의 육신이 누런 모포에 덮여져 들것에 실려 가는 모습을 보는 듯하였다. 메이씨는 소년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소년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해 주었다.

“애야, ” 그가 말했다. “너 노래할 수 있겠니?”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두려움에 질린 음성으로 노래를 시작했다. “물결 일어날 때와 유혹에 휩쓸릴 때, 사랑하는 예수여, 저를 풀어 주소서.” 그는 낭랑한 높은 음성으로 노래를 불렀다. “풍과 지나가도록 주어 숨겨 주소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내 영혼 받으소서.” 그는 메이씨가 격한 감정으로 떨고 있음을 느꼈으므로, 계속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암흑 속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허기와 갈증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

“가죽을 조금 씹어 보아라. 그러면 허기가 약간 가실게야.”라고 메이씨가 일깨워 주었다.

소년은 무릎 아래의 가죽 끈을 베어 씹었다. 새 가죽이었으므로 아직 가죽 냄새가 났다. 그러나 허기를 가시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잠을 잤고 또 하루가 지났다. 메이씨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은 듯이 이제는 조용하였다. 허기와 갈증 때

---

“형제 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두려움 속에서 신앙이 나왔고,

어두움 속에서

생명의 빛이 나왔읍니다.”

---

문에 소년도 말이 없었다. 칠흑같은 어두움이 수의처럼 소년을 덮어 씴었다. 그는 이제 죽음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한 음성이 들렸다. “저기 누구 있어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와졌다. 그러더니 누군가가 간막이 형질을 들추었다. 빛이 메이씨와 소년에게 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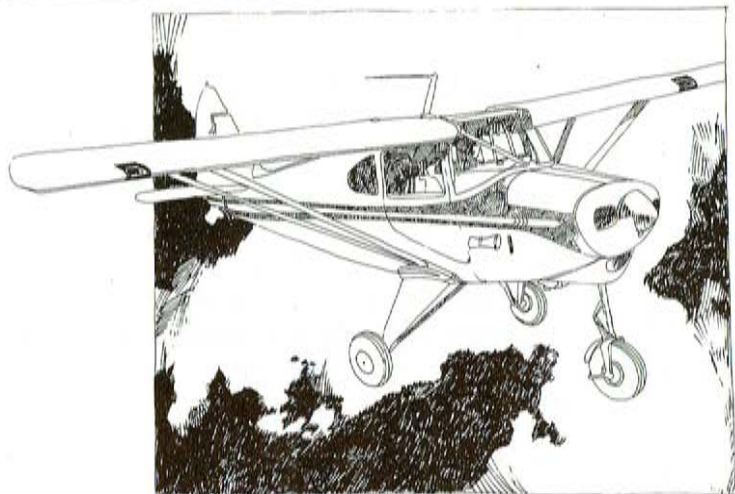
“기적이다. 살아 있어!” 그 사람은 다른 구조원들에게 소리쳤다.

메이씨는 걸을 수 있었으나 소년은 그들이 승강기까지 메고 갔다. 그들은 빛과 생명을 다시 찾게 되었다.

소년의 아버지는 폭발로 인하여 돌아가셨다. 그래서 데이비 에드워즈 가족이 소년을 데려갔다. 며칠이 지나자 계곡 저 아래쪽에 살고 있는 친척이 소년을 데리러 와서 그들의 집으로 데려갔다. 소문에 의하면 아주 좋은 사람들인데 미국에서 시작된 이상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했었다.

소년과 그 가족은 함께 이주 계획을 세워 드디어 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날이 왔다. 그리고 그곳 산 계곡에서 그들은 새롭게 집을 지어 살게 되었다.

노인은 이렇게 그의 간증을 맺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두려움 속에서 신앙이 나왔고, 어두움 속에서 생명의 빛이 나왔읍니다.” ❀



## 다른 차원에서의 관점

리 달른

안 패! 안 패! 이 언덕이야! 주행 선으로 들어가!” 나는 300미터 상공에서 아래의 노란색 자동차의 운전 기사에게 들리게라도 하려는 듯 악을 썼다. 내 아래에서 펼쳐질 끔찍한 광경을 막아보려고 발로 오른쪽 방향타 페달이 마치 제동 페달인양 눌러 대며 필사적으로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나는 눈을 감아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때는 따스한 봄날 오후, 내가 비행 면허증을 받은 직후였다. 나의 작은 노랑색 비행기는 고속 도로를 따라 강을 넘어 산을 넘어 부릉거리며 날았다.

지면에서 보면 언덕이 상당히 가파라서 자동차 엔진으로는 오르기 힘든 곳이었다. 그러나 언덕에서 직각되는 상

공에서 보면 언덕이 거의 평지와도 같아 보였다. 지표면의 그림자 색이 약간 차이가 나고 노란색 두 줄 선이 도로에 그어진 것으로 그곳이 언덕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나는 발 아래 펼쳐진 신록의 봄을 한 가름게 감상하고 있었다. 나는 고속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추적하는 게임을 하였다. 우리—작은 노란색 비행기와 나—가 이기고 있었다. 우리가 강의 교각까지 왔을 때 나는 서쪽으로부터 언덕 꼭대기로 다가오는 자동차의 긴 행렬을 볼 수가 있었다. 작은 푸른색 차가 우리보다 약간 앞서 있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곧 앞섰다. 푸른색 자동차는 뒤로 밀려났고, 또 다른 자동차를 찾아 추적할 참이었다.

---

“안돼! 안돼! 이 엉터리야! 주행선으로 들어가!”

---

푸른색 차가 다리를 건너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서쪽으로부터 자동차 행렬이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첫번째 차가 막 언덕 마루를 넘어 내리막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우리는 푸른색 차를 쫓고 있었는데, 언덕 바로 위로 왔을 때 노랑색 자동차가 4차선인가 5차선인가에 있다가 차선을 바꾸었다. 노랑색 차는 황색 차선까지 넘어와서는 다시 주행선으로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줄지어 달리고 있는 차의 행렬에서 가장 앞에 있는 차까지 추월하려는 것처럼 점점 속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푸른색 자동차는 여전히 언덕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선체를 좌측으로 바꾸어 공중에서 회전을 하며 앞으로 탁치게 될 광경을, 그러나 탁치지 않기를 바라며 지켜 보았다. 두 자동차가 언덕 정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운전 기사는 둘 다 상대편 자동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이제 겨우 60미터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향하여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오른쪽 방향타 페달을 누르자 선체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들은 서로 부딪치게 될 것이다. 어느 쪽 자동차의 기사에게도 내 말이 들릴

---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너는 알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우리가  
그의 영적인 권고를  
무시하고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계실 때,  
하나님의 느낌이  
어떠하실지  
너는 알겠지.”

나는 노력해 보았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

리는 없겠지만 나는 상공에서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질렀다. 나는 노랑색 자동차를 주행선으로 들어가게 하려 애썼으나 그 차는 계속 달리기만 하였다.

이제는 거리가 상당히 좁혀졌다. 위에서 보니 손가락 굵기 정도 떨어져 있는 것같이 보였다. 나는 목이 아팠다. 몸이 뻣뻣해졌다. 아래의 광경에 정신이 팔려 비행기는 왼쪽으로 크게 기울어졌고 그것을 막기 위하여 오른쪽 페달을 밟아 겨우 바로잡았다.

푸른색 자동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마침내 위험을 본 것이었다. 그러나 노란색 자동차도 그쪽으로 돌리는 게 아닌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왼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 결국은 정면으로 갔다던 것이었다.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너무도 이상한 침묵이었다. 두 자동차 주위에 먼지 구름이 피었다. 푸른색 자동차는 나뭇굴어져 도로 옆 도랑에 떨어졌다. 자동차 파편이 공중으로 튀면서 햇빛을 받아 섬광을 발하였다. 조그만 사람같은 형체가 자동차에서 나와 구르더니 멈췄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의자에 스르르 빠져드는 것 같았다. 나는 불현듯 작은 노란색 비행기가 제멋대로 날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즉시 비행기를 바로잡아 공중에서 회전하였다. 경찰차, 불자동차, 그리고 구급차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작은 비행기를 탄 나는 계속 선회하였다.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나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나는 완전히 기진맥진하였다. 나는 노력해 보았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 그러나 기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비행기의 바퀴가 활주로의 잔디 위를 내릴 때 태양은 하늘에 나지막이 걸려 있었다. 작은 비행기는 기착지에 내렸고 프로펠러가 돌다가 멈췄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젖은 풀밭에서의 귀뚜라미 합창 소리와 엔진이 멈추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직도 몸이 떨렸다. 후에 나는 충돌 사고로 여섯 명이 죽었고 생존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행기를 땅에 안전하게 두기 위하여 로우프를 매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너는 알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우리가 그의 영적인 권고를 무시하고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계시네, 하나님의 느낌이 어떠하실지 너는 알겠지.” \*

# “제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지요?”

시 잭 레몬

루이지애나 베이튼 루즈 선교부 사무실에서 지도자 모임을 막 끝냈을 때 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뉴올리언즈에서 일하고 있는 율슨 장로의 음성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의 동반자인 프리먼 장로가 18톤 트럭에 치어 병원으로 옮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관리 선교사에게 연락이 안되어 율슨 장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두 시간 이내에 아내와 함께 그

곳으로 가겠다고 그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자 간호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마가렛 시몬스 자매가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프리먼 장로의 부상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골반이 두 군데 부러지고 한 군데는 금이 갔으며, 비장이 탈장되었고, 늑골이 부러졌으며, 엉치뼈가 부러지고, 다량의 혈액이 응고되어 장내에 부착되었으며 그 밖에도 경한 부상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시간 이상이 지나자 프리먼 장로

가 수술실에서 나와 중환자실로 실려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자가 24시간을 무사히 넘기면 살 가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희망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의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집골 전문가가 도착하였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나는 그를 붙들고 솔트레이크시티로 보고하기 위해 경위를 물어 보았습니다. 전문가는 뼈가 반으로 부러진 듯이 골절이 깨끗하다고 말하며 치유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간 중환자 치료를 받고, 8주간 집골 치료를 받아 6개월을 기다렸다가 다시 분석을 해보아야 그가 다시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어린 선교사를 방문하여 그에게 신권 축복을 주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허락이 내려져 나는 다섯 명의 다른 장로들과 함께 그의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그의 동반자가 그에게 기쁨을 부었습니다. 나는 그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느끼며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머리에서 손을 빼자, 그가 일어나더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지요, 레몬 부장님?” 하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신앙이 아닙니까! 나는 “아직 선교 임기가 끝나지 않았잖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방을 나설 때 나는 가까이 의자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신권의 힘을 처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시몬스 자매가 나를 옆으로 끌어당기더니 축복하는 것을 그들이 모두 주의깊게 보고 조용히 들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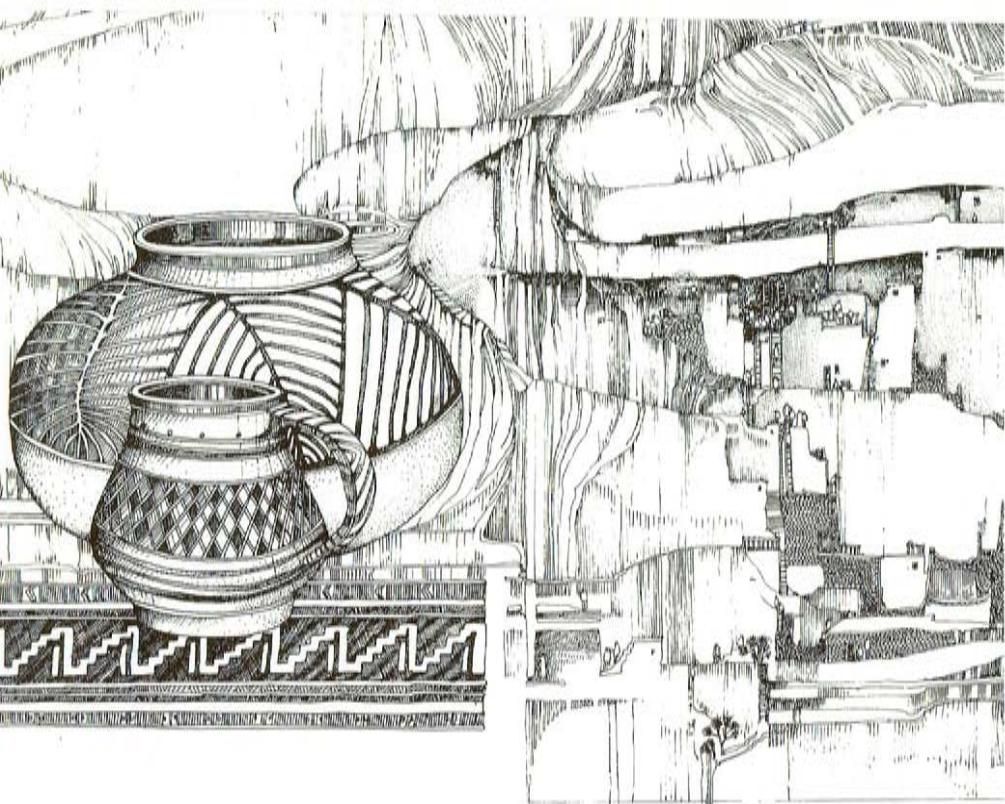
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입원 3일째 되던 날, 프리먼 장로는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예상을 5일이나 앞당긴 것이었습니다. 다음 몇 주 일 동안 그는 뼈를 잡아당겨 원 위치로 되돌리는 집골 치료를 받았습니다. 극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사 토론을 암기하고 병원 고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회복에 대한 간증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병원 원장을 위시하여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고 6주 만에 프리먼 장로는 퇴원하여 베이른루즈 선교부 사무실로 와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차도에서 빠져 나왔을 때 그는 목발을 짚고 자동차에서 내려 나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 번 의사의 예견을 뒤엎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거의 9개월이나 앞당긴 것입니다. —체중이 많이 줄어들어 바지 허리에 경전이 들어갈 만큼 바지가 헐렁거리기는 했습니다만.

사무실에서 한 달간 일을 한 후, 프리먼 장로는 새 임지로 보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를 루이지애나주 베이커의 구역 지도자로 파견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한 후 곧 목발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프리먼 장로는 루이지애나 해몬드에서 지주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걸을 때나 쉴 때, 약간 절름거리긴 하지만 모든 활동을 불편없이 즐기고 있습니다.

매튜 프리먼 장로는 신권의 권능과 신앙의 힘을 체험한 살아 있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나는 신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온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 봉사하는 프리먼 장로와 같은 훌륭한 청년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콜**로라도주 콜비즈 부근의 메사 베르드 캐년의 산마루 높은 곳에는 돌출된 벼랑의 자연적으로 우묵하게 파여진 곳에 세워진 신비스러운 도시의 잔재가 남아 있다. 그곳에서 한때 살았던 인디언은 클리프 드웰러(벼랑에 사는 주민)라고 불리웠으며, 그들은 별다른 생활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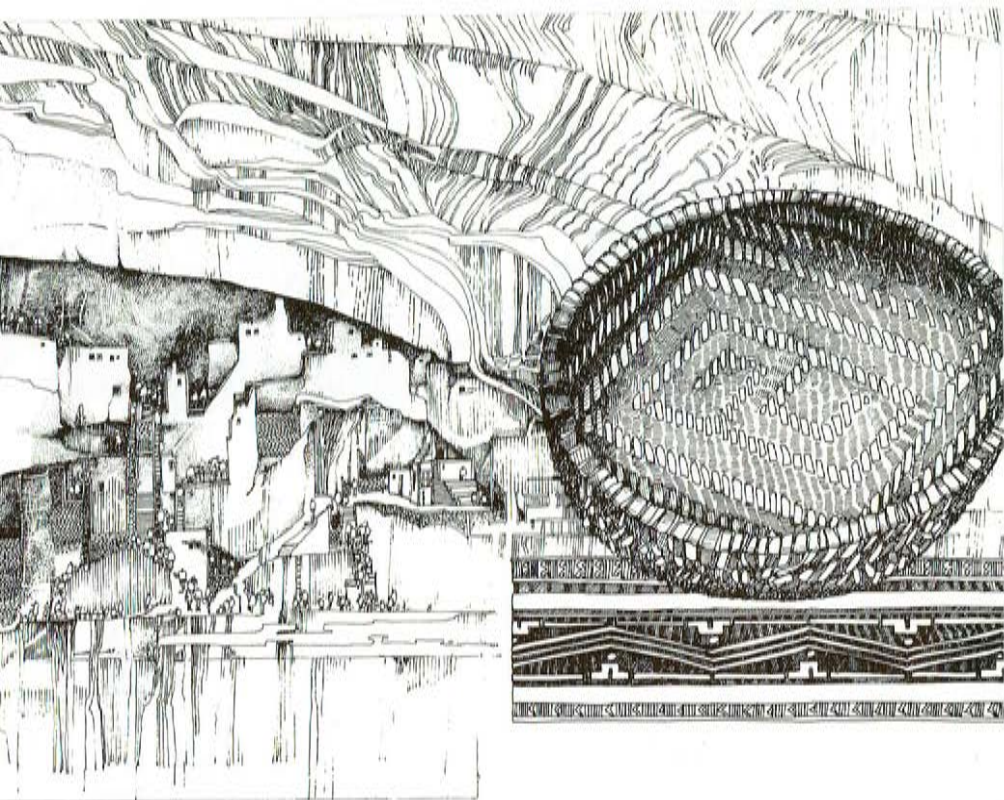
인디언들은 콩과 수수를 재배하고 사냥을 하는 곳까지 가기 위하여 자연 발생적인 사다리라든가, 또는 벼랑을 오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손잡이 구멍과 밭 놓는 구멍을 사용하여 가파른 벼랑을 기어 내려가야 했다. 그들이 사는 곳까지 물과 일용품을 운반하는 일은 위험이 따르는 작업이었으며 특히 노인

## 공중 도시

과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굴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 일단 집안에 들어가면 가족은 적의 공격을 당할 염려가 없었다. 고지대 주거지가 선택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마을은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나, 남서부 콜로라도주에 있는 메사 베르드 국립 공원에 있는 마을이 가





# 공중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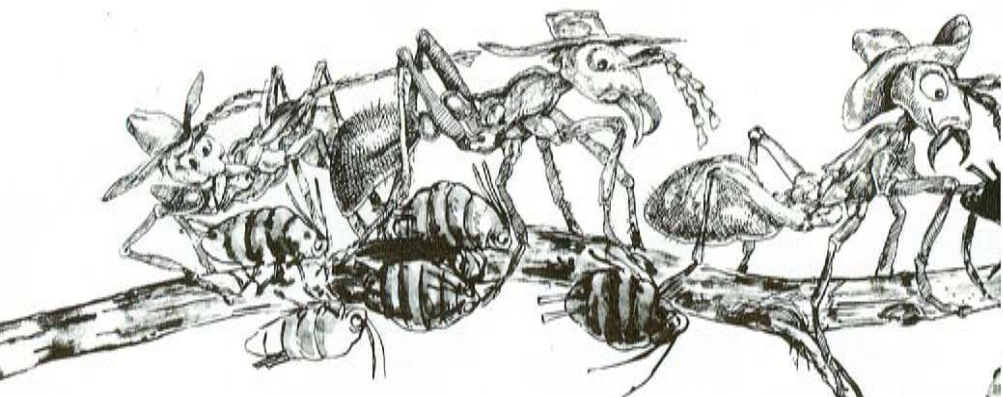
윌리엄 비숍

장 잘 보존되어 있는 마을일 것이다. 약 100여 년 동안, 인디언 동족은 이 마을을 완전한 규모의 지역 사회로 발전시켜 회합실, 창고, 가족의 거처로 사용되는 수백의 개별적인 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집 중에는 4층 건물들도 있다.

13세기 말에 메사 베르트 주민은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연장과 그

릇과 완전한 모양의 바구니 등을 남겼는데, 덕분에 이 특별한 주민들은 바구니를 만드는 종족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이 그 마을을 떠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삼십년간의 가뭄으로 그곳을 떠나게 된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가뭄이 들면 더 좋은 땅을 향해 떠나야 했으므로 서부의 많은 도시가 유명한 도시로 되어 버렸다.

오늘날 국립 공원 관리소에서는 벼랑 주거지를 관리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곳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모닥불의 신비스러운 불꽃 주위로 모여, 이상한 마을과 초기의 주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우리는 마법에 걸린 것처럼 황홀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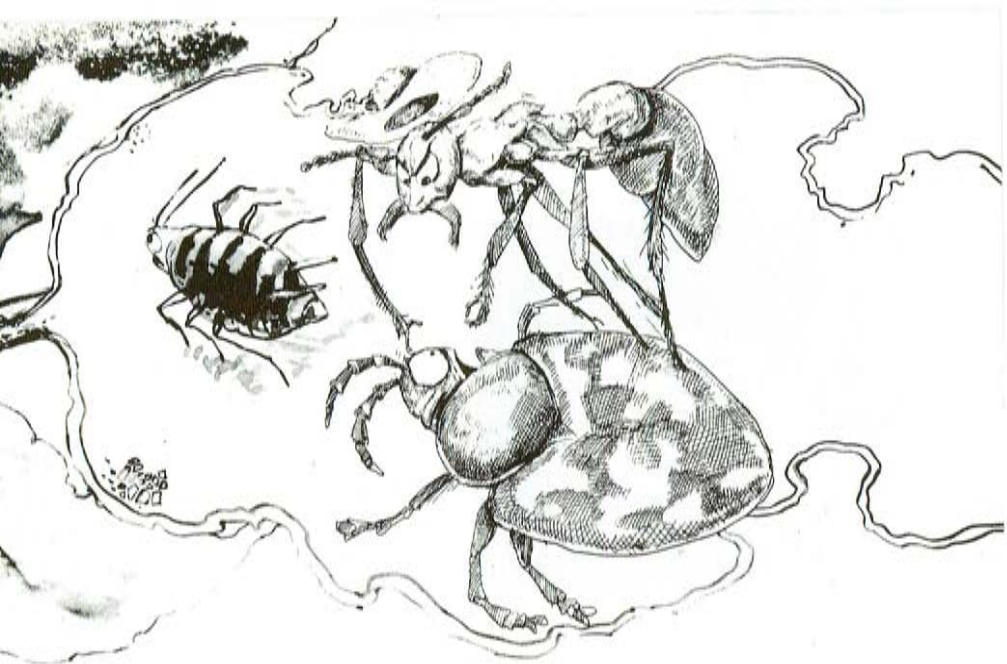


# 카우보이 개미

진 킴

카우보이 개미는 진이 나는 장미 줄기에 붙은 진딧물이라는 개미의 “소” 위를 보호하듯이 넘나 든다. 개미는 검은 더듬이로 진딧물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진딧물의 복부로부터 액체가 떨어질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는 액체가 떨어지면 그것을 빨아 먹는다. 이렇게 하여 카우보이 개미는 그들의 “소메”로부





터 식량을 얻는 것이다.

개미 소가 내는 황금색 액체 방울은 단물이라 하며, 이것은 개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량이 된다. 세계의 어떤 곳에서는 단물을 진미로 삼고 있는 곳도 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곤충이 단물을 저장해 놓은 식물 입을 씹어 빨아먹고 버리기도 한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이것을 먹으라는 말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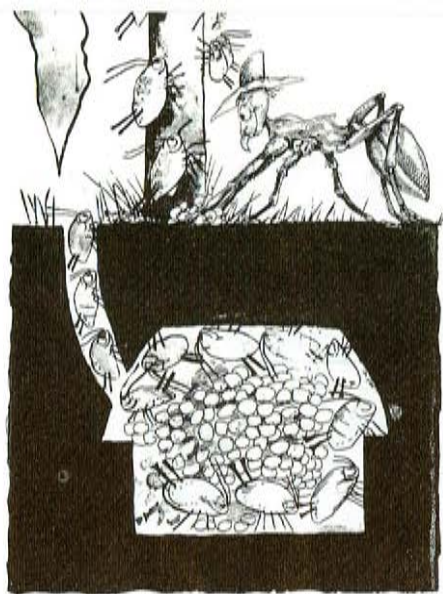
세계 각지에는 곤충이 너무 많은 단물을 빨아 그 물방울을 떨어뜨려 굳어 진 곳이 있다. 아프리카나 호주처럼 이 러한 것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이것을 모아 음식으로 팔기도 한다.

카우보이 개미는 배가 고프면 자기가

모아 놓은 단물을 다 먹어 버린다. 그러나 배가 고프지 않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진딧물에서 단물을 모아 개미 복부에 있는 특별한 주머니에 그것을 저장한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다른 일개미들에게 먹이거나 겨울을 대비해 저장한다.

카우보이 개미는 진딧물에만 관심을 쏟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곤충에게 향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동물로부터 젖을 짜는 것과 같이, 개미도 여러 종류의 곤충으로부터 단물을 얻는다.

메뚜기나 쥐똥벌레 또는 온갖 종류의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당분을 빨아먹는 작은 곤충들을 개미소라고 하기도 한다.



농부들은 옥수수 뿌리에서 옥수수의 생명원을 빨아먹고 있는 수수 이를 매우 싫어한다.

개미의 보호를 받는 곤충은 그렇지 못한 곤충들보다 운이 아주 좋다. 개미의 보호 본능을 시험하고 싶으면 개미의 소매에 마른 풀잎을 한장 넣어 보자. 카우보이 개미들이 방어하기 위하여 재빨리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가축떼를 늑대들이 공격하듯이 큰 곤충은 기회만 있으면 개미의 소매를 공격하려 한다.

무당벌레 한 마리가 진딧물떼 옆에 내려앉아 도망치지도 못하는 개미의 소매를 잡아 먹기 시작한다. 그러던 카우보이 개미는 무섭게 보이는 턱을 펴고 물격을 시작한다. 전투가 벌어지면 곧 붉은 색 날개의 적이 땅에 떨어진다.

카우보이 개미는 또한 거친 기후로부터 그들의 소매를 보호해 준다. 가을이 오고 식물에서 나오는 진의 양이 적어

지면 밋밋 개미는 진딧물의 암컷을 새로 간 알들과 함께 모아서 지하에 특별히 만들어 놓은 소형 공간과 같은 곳에 보호한다.

완전히 자란 진딧물을 운반하기란 알을 운반하기보다 훨씬 힘들다. 작은 개미의 소매에는 작기 바늘과 같은 부리가 있어 나무 껍질이나 풀잎의 피막에 부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카우보이 개미가 개미 소들을 잡아 끌어 옮기는 일은 상당한 힘든 작업에 속한다. 겨울이 지나면 개미들은 진딧물을 옥수수과 같은 식물의 뿌리에 갖다 놓는다. 그리고 봄이 거의 지나면, 개미들은 개미 소들을 밖의 푸른 세상으로 몰고 와서 연한 어린 줄기의 진을 먹게 한다. 진딧물의 알을 식물 줄기를 따라 진딧물 옆에 놓는다.

땅 속에 보존되었던 겨울 알에서는 날개없는 암컷 진딧물이 부화되어 나온다. 그것들은 약 두 주간이 지나면 완전히 성장하게 되어 알을 낳게 된다. 봄 진딧물은 가을에 교잡하여 알을 낳는 곤충과는 달리 새끼를 낳는다. 이를 날개없는 암컷 진딧물은 처녀 생식 또는 단성 생식이라고 불리우는 생식 과정을 통하여 연초에 새끼를 낳는다. 단성 생식이라는 것은 암컷이 수컷과 교잡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진딧물도 어미의 몸에서 부하되어 알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상태로 살아서 태어난다.

카우보이 개미는 그들의 소매를 새로운 봄의 세기로 옮겨 놓은 후에, 소매가 얼마나 많은 단물을 만들어 내는지 감시한다. 많이 만들어 내지 못하면 진딧물을 다른 좋은 풀밭으로 옮겨 놓는다.

✱



# 내 친구



## 친구가 친구에게

지 호머 더럽

친실인 제일 정원희



**나**는 유타에서 태어났지만 내 추억의 대부분은 매사츄세츠주 보스턴에서 시작됩니다. 회미하게 기억나는 최초의 추억은 세 살 때에 흰 덮개가 없는 마차에 할아버지와 함께 마부석에 탔던 때입니다. 부모님과 6개월된 동생과 함께 64킬로미터 떨어진 기차역까지

갔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보스턴의 호텔 방에서 비가 뿌리는 창 밖을 보던 때입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코를 대고 창 밖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고 있던 일이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생활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보스턴에서 음악을 배웠습니다. 여러 해를 지나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연주하시는 곡을 거의 모두 연주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난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숲에 들어가 기도한 소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때를 기억합니다. 내가 살던 아파트 부근에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나는 교회의 종소리를 들었고 함께 산보하면서 교회의 침탑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요셉이 무슨 교회에 가입하여야 할지를 걱정하던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나는 그가 첫번째 시현을 보기 전에 느꼈을 혼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이 요술처럼 기록되어 언젠가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한 것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서 책 읽기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는 항상 뉴 잉글랜드 국립 음악 학교 일로 바쁘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내게 4세 때부터 책 읽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상상력을 일깨워 준 책 중에 "브라우니

북"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는 달나라로 가버린 조그만 요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밤에 창밖으로 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달은 하늘에 있는 매우 중요한 물체 같았습니다. 달에 간다는 생각은 나의 어린 상상력을 한껏 부풀려 주었습니다.

또 한 책은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미국 개척지를 이룩하여 내가 태어난 이 나라를 발전시킨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그 책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즈음에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과 그의 두 보좌는 교회 회원들에게 매주 한 번씩 가정의 밤을 가지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온 가족을 식탁에 불러 모아 물문경을 읽어 주셨습니다. 그 해에 우리는 물문경을 모두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읽기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도 차례가 오면 큰 소리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니파이삼서에 있는 구세주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흥분된 감정으로 읽었는지! 슬픈 느낌으로 물문경의 이더서, 모로나이서를 계속하여 읽었습니다. 이같은 느낌은 나의 아버지에 의해 더욱 강하게 굳혀졌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영감을 받아 "니파이인의 애가"라는 곡을 작곡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토마스 더럼은 축복사의 축복에서 하늘에서 불리운 노래를 듣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꾸신 꿈 이야기



를 내게 들려주었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는 시냇가에 서 있는 스물네 명의 남자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슬퍼 보였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트럼펫 소리같은 멜로디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모로나이와 마지막 스물네 명의 니파이인에 대한 꿈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깊은 밤중에 잠이 깨 할아버지는 작은 오르간으로 다가가서 꿈에서 들었던 멜로디를 연주해 악보에 옮겼습니다. 후에 남부 유타 합창단이 “오 높은 영광 보좌”의 가사에 맞추어 그 곡을 노래하였고 초등학교의 노래 책에 편곡되어 출판되었습니다.

그 음악을 듣고 물문경을 읽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은 마음속에 물문경의 실제성과 진실성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나는 어린이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행동을 잘 관찰하여 따르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잘 가르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는 또한 여러분이 가정에서 듣는 음악이 영을 고취시키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신약개조 제13조)고 믿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시작하는 장소는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입니다.

끝으로 다음 계명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애굽기 20:2) \*

